



정부의 졸속적인 한-칠레 FTA 체결 추진을 반대한다

우 리 농업에 결정적 타격을 입힐 정부의 한-칠레 FTA 정식 서명 절차가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어, 12만 한농연 회원과 400만 농민들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1월 20일 주요 언론들은, “한-칠레 양국 정부가 오는 2월 15일 리카르도 라고스 칠레 대통령이 방한한 가운데 서울에서 FTA 체결에 공식 서명할 예정”이며, “서명 후 4월중 국회비준을 요청할 방침이며 6월까지의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의 발표를 인용·보도했다.

한-칠레 FTA, 국회비준 거부만이 농업·농민 살 길이다!!!

정부는 정권 이양기동안 한-칠레 FTA를 조기 처리하기 위해 추진중이다. 정부는 2월 15일 칠레 대통령 방한시 정식 서명 이후, 국제 협약 체결 후의 관례에 따라 국회비준은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내심 기대하고 있다. 졸속·밀실·농민생존권 말살로 일관해 온 정부는, 마지막 국민적 합의 절차인 국회비준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이다.

이처럼 정부의 한-칠레 FTA 조기 발효 추진이 이뤄질 경우, 노무현 당선자가 대선 기간 이래 강조해 온 “선대책-후비준(체결)” 원칙마저도 실질

적으로 무너질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전 농업계가 한-칠레 FTA 비준 거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 이행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 계획대로 김대중 정권 내 정식 서명을 강행한 직후 “FTA 이행 특별법(안)”을 제출하여 국회비준을 시도한다면, 노 당선자가 언급했던 “선대책-후비준(체결)”의 원칙은 온데 간데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400만 농민과 4,700만 국민 모두는, 노 당선자의 농정공약 실천 의지마저 근본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FTA 이행 특별법」을 제정하여 FTA 체결로 인한 농가피해 보상과 농업 구조조정 등 ‘선대책’을 세우겠다고 언급해 왔다. 특히 인수위에서는 “FTA로 인한 기업 이익의 일부를 농민에게 보상토록 제도화할 것이며, 여의치 않을 경우 농업예산 10% 이상 확충 또는 농특세 재원 마련을 통해 보상하겠다”고까지 내비쳐 왔다.

그러나 한농연을 중심으로 농민단체들은,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의 「FTA 이행 특별법」 등 이른바 ‘선대책’이 허울뿐인 대책임을 분명히 하고,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하여 작년 10월말부터 「한-칠레 FTA 비준 거부 국회의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여

총 65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이를 토대로 한농연은, 임시국회 개회 직전까지 지속적인 국회의원 서명운동과 명단 수시 공개를 통한 대 정치권 압박 작업을 전개하고 2월 말 타 단체와 연대하여, 한-칠레 FTA 국회비준 거부 '기자회견' 및 '국회의원 선언'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여야 정치권의 한-칠레 FTA 비준 거부 당론 채택 이후 각국과의 FTA 체결시 농업부문 예외(혹은 DDA 협상 이후 연기) FTA 협상 시작부터 농민대표자 참여를 통한 협상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해 나갈 것이다.

한농연이 솔선하여 대국민 홍보활동, 대정부·대정치권 압박 활동을 힘차게 전개하자!!!

이미 전라남도연합회는 전농 광주전남연맹 등 지역 내 4개 농민단체와 함께 '광주·전남 농관련 단체 연석회의'를 구성하여 한-칠레 FTA 반대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별 농민단체들의 발빠른 움직임은, 2월 15일 정부의 한-칠레 FTA 정식 서명일에 절정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를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한농연 회원들은 솔선수범의 자세로 지역 내 농민·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



2월 15일 칠레 대통령 방한시 정식 서명 예정
4월 임시국회서 국회비준, 6월중 정식 발효 추진...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만이 살 길이다!!!

지 성사를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 다양한 방식을 통한 대정부·대정치권 압박 활동을 힘차게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하고 창의적인 방식을 총동원하여 대국민 선전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한-칠레 FTA 정식 서명·국회비준 반대」 현수막을 고속도로·국도·철로변에 설치하고 중앙일간지나 지역신문 등의 생활광고를 이용하여 「한-칠레 FTA 정식 서명 반대·

국회비준 거부」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만 하다. 아울러 서명운동 미참여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반드시 비준반대 서명을 받아내고 각 지자체별로 '한농연 지방의원협의회' 소속 기초단체장·지방의원과 협력하여 「한-칠레 FTA 정식 서명·국회비준 반대 건의안」을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채택하도록 해야 한다. 한농연을 중심으로 위와 같은 대국민 홍보활동과 대정부·대정치권 압박 활동이 각 지역별로 뜨겁게 전개될 때,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를 통한 우리 농업·농민의 희생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다.

국민적 합의 없이 밀실거래를 통해 가서명된 한-칠레 FTA 정식 발효를 추진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반드시 저지시키기 위해, 한농연 12만 회원과 400만 농민은 뚝뚝 뭉쳐 더욱 가열찬 투쟁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 · 칠레 FTA 비준거부 국회의원 서명현황 (2003년 2월 10일 현재 총 69명)

한농연은 정치권이 '자본과 권력'의 양지만을 쫓아갈 것이 아니라, 「한-칠레 FTA」로 인해 벼랑 끝에 놓인 농업과 농민들의 편에 서서 국회비준 거부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만약 또 다시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한농연은 각 농민단체와 강력히 연대하여 「지역구 의원 소환운동」을 비롯하여 「지구당사 점거농성」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비준 투표 결과를 예의주시하여 2004년 총선에서 「반농민적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전개하여, 농심을 이반한 댓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다.

경기 8명	배기선(부천 원미읍) / 최선영(부천 오정) / 정장선(평택읍) / 강상구(오산·화성) / 김홍식(하남) / 이해구(안성) / 정병국(가평·양평) / 박종우(김포)
강원 7명	최연희(동해·삼척) / 김용학(영월·평창) / 이용삼(화천·철원·양구) / 송훈석(속초·고성·양양·인제) / 김택기(태백, 정선) / 최돈웅(강릉) / 이창복(원주)
충북 4명	신경식(청원) / 심규철(보은·옥천·영동) / 정우택(진천·음성·괴산) / 송광호(제천·단양)
충남 7명	함석재(천안읍) / 원철희(아산) / 이완구(천안·홍성) / 문석호(서산·태안) / 정진석(공주·연기) / 전용학(천안 갑) / 이인제(논산·금산)
전북 3명	장성원(김제) / 김원기(정읍) / 이강래(남원·순창)
전남 5명	정철기(광양·구례) / 천용택(강진·완도) / 이정일(해남·진도) / 이낙연(함평·영광) / 배기운(나주)
경북 13명	권오을(안동) / 김광원(봉화·울진) / 김성조(구미) / 이상배(상주) / 임인배(김천) / 신영국(문경·예천) / 박재욱(경산·청도) / 주진우(고령·성주) / 이인기(칠곡) / 정창화(의성·군위) / 김찬우(청송·영양·영덕) / 박헌기(영천) / 박시균(영주)
경남 12명	김학송(진해) / 김동욱(통영·고성) / 이방호(사천) / 김용갑(밀양·창녕) / 윤한도(의령·함안) / 박희태(남해·하동) / 이강두(거창·함양) / 김기춘(거제) / 김용균(산청·합천) / 하순봉(진주) / 이주영(창원 을) / 김종하(창원 갑)
제주 3명	현경대(제주) / 양정규(북제주) / 고진부(서귀포·남제주)
특광 6명	이우재(서울 금천) / 이양희(대전 동구) / 송석찬(대전 유성구) / 권기술(울산 울주) / 허태열(부산 북구·강서구을) / 안경률(부산 해운대구·기장군을)
비례대표 1명	김영진

정부, 2월 15일 정식 서명 · 4월중 국회비준 · 6월까지 정식 발효 추진...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만이 살 길입니다!!!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 임기 내 정식 서명, 4월중 국회비준, 올 6월내 발효를 목표로 국민적 합의절차도 없이 한-칠레 FTA를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농연 12만 회원 모두의 단합된 농업희생 의지로
400만 농민과 4,700만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
한-칠레 FTA 국회비준을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 졸속 · 밀실 · 농업말살 협상인 한-칠레 FTA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채 졸속 · 밀실 협상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 칠레는 경제력이 매우 취약하여, 우리 공산품의 추가 수출이 어려워 중남미 시장 교두보도 되지 못합니다.
- 한-칠레 FTA로 칠레산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고 대 칠레 무역수지가 적자로 돌아섭니다.
- 소수 재벌의 이윤 추구를 위해 400만 농민의 생존권이 일방적으로 말살당하게 됩니다.
- 한-칠레 FTA 체결로 7천만 민족의 식량주권과 우리 농업은 파탄날 것입니다.

● 한농연 12만 회원이 솔선하여, 정부의 한-칠레 FTA 추진을 적극 저지합시다

- 한농연 조직이 앞장서서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를 위해 지역 내 농민 ·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나갑시다.
- 아직껏 서명운동에 동참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 반드시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 서명}을 받아냅니다.
- 고속도로 · 국도 · 철도 인근 각 마을마다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 현수막 물결 운동}을 전개합니다.
-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에 항의 서한을 올립니다.
- 중앙일간지와 지역 신문에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 미니광고를 게재합니다.
- 한농연 출신 기초단체장 · 지방의원과 협력하여 전국 동시다발로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 건의안}을 채택합니다.

**한농연 12만 회원과 400만 농민이 하나되어
4,700만 국민과 함께, {한-칠레 FTA 국회비준 저지}의 그날까지 싸워 나갑시다!!!**

2003. 2.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